



**김학기 명예교수, 전북대에 발전기금 기부**

김학기 전북대 명예교수(법학과)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4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학본부 4층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력 향상과 학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학기 명예교수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과 군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6년 전북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법전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조인 양성에 힘썼다. 김 명예교수는 "국내·외 정세 변화와 시대 흐름을 잘 읽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서전주새마을금고, 김치 50박스 기탁**

서전주새마을금고(이사장 박삼순)는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치(5kg) 50박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일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동장 김은성)에 기탁했다. 박삼순 이사장은 "올해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느때보다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며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성 서신동장은 "매년 서전주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우리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전주새마을금고는 2017년부터 9년간 매년 사랑의 쏘도리 기부금 500만원 총 4,500만원을 동네복지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이웃에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권희성 기자



**이남출 일자리협회 지회장, 운봉읍에 성금 기탁**

남원시는 전국 일자리협회 이남출 전북지회장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의 성금을 운봉읍에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달된 성금은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남출 지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매년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이남출 지회장에 감사패를 전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송창호씨, 백미·라면 등 기부**

남원시는 덕과면 주민 송창호 씨가 2026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를 이어가며, 백미 23포(10kg)와 라면 23박스(20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송창호 씨는 지난 2025년 백미 20포와 라면 20박스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한 데 이어, 올해는 더 넓은 지역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성품을 늘려 기부했다. 송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 곳곳에 따뜻함이 전해져 이웃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송창호 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부자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23개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소중히 배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베트남 다낭시 겸례동과 교류·협력 구체화**

무주군, 베트남 다낭시 겸례동 대표단 무주방문... 4일부터 1박2일 일정 태권도원 등 방문

무주군의 국제 우호협력도시인 베트남 다낭시 겸례동 대표단이 4일 무주군을 공식 방문했다. 대표단에는 응우옌 아이 드엉 겸례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응우 티 푸이 쟁 겸례동 인민의회 부의장 응우옌 티 꾸이엔 겸례동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 사무국장, 레 쑤 즈엥 겸례동 경제·인프라·도시과장 후인 특 솔손(Son Son) 주식회사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1박 2일 일정으로 무주군에 머물 예정이다. 4일 무주군에 도착한 대표단은 무주덕유산리조트에 여장을 풀고 태권도원과 무주비더랜드, 머루아인동굴 무주상생비대숲 등을 둘러본 뒤,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두 지자체 간 관심 분야에 관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5일에는 덕유산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덕유산에 오를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관계자들과 베트남 다낭시 겸례동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간 교류 성과 점검 및 중장기 로드맵 설정 등 우호 협력체계 재정비 사항을 검토했다. 또한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대표 축제 벤치마킹 전시·공연 및 학술 교류 추진, 주요 정책 공유 협



의체 운영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교류 확대, 스포츠 관련 연수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체육 분야 협력, 스키장근로자 인력 수급 확대와 농특산물 수출 확대 등 농업·상거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응우옌 아이 드엉 겸례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세계 태권도 성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자연 특별시 무주군과의 교류를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결실"이라며 "상호 신뢰가 상생발전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기자



**남원시, 읍면동 복지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남원시는 12월 3일,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동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남원시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 위해 △읍면동 복지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복지안전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 △남원원 복지안전 119 앱 기능 개발·운영을 추진했다. 복지안전협의체는 지역 사정에 밝은 마을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구성, 안전 취약가구 및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은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플러그를 부착하고, 전력 사용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대상지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119 앱은 휴대용 앱을 활용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9회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성료**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4일 진안 문예체육관에서 제19회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 한 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자원봉사로 행복한 진안만들기를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진춘성 진안군수, 동창회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해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나눔문화 확산의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센터 소속 각 단체 및 협약기관 자원봉사자들이 소속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깃발 입장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봉사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과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시상에는 올 한 해 157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허경옥 진안면 자원봉사단장이 '영광왕'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재동 이사장은 "작은 선행이 모여 지역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앞으로도 서로 돕는 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춘성 군수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진안군을 더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군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유태민 기자



**부안 동진면, '벗님네 포레도' 착한 가게 현판식**

부안군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종각)는 4일 동진면 증산리에 위치한 치유정원·원예체험 농장 '벗님네 포레도'에서 착한가게 가입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동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매월 3만원을 지정 기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벗님네 포레도'는 지역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치유농업 공간으로 온실정원·원예체험·정원 힐링 프로그램 등 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농촌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새로운 관광·체험 명소를 자리 잡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북대병원 간호연구팀, 국제학술지 WHN에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 산하 간호연구팀의 연구 논문이 국제 간호학 분야의 SCOPUS 등재 학술지 Women's Health Nursing(WHN)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암 치료 과정에 있는 여성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으로, 전북대병원의 생명연구팀 노주희 교수와 간호부 소속 정현진·홍유진·홍서영 간호사가 공동 참여했다. 연구진은 Femars의 삶의 질 모델을 토대로 여성의 신체적·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함께 고려해 삶의 질 관련 핵심 구성요인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여성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간호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활동 수행능력 △지각된 건강상태 △죽음 불안이 제시됐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접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환자의

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구체적인 중재 전략으로 △개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기능 회복 지원 △지속적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한 건강 인식 증진 △심리사회적 개입을 통한 죽음 불안 완화 △영양적 불균형의 실질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북대병원 간호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여성 암 환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간호 중재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환자 중심의 고도화된 간호 실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국제 학술지 게재는 전북대병원 간호연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성과"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중앙교회,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전달**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영규)는 4일 남원중앙교회(목사 정종승)와 취약계층에 연탄(1,000장)을 전달하는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남원중앙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탄을 기탁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연탄을 지원받은 한 주민은 "도움을 받으니 큰 위로가 된다"며, "이번 겨울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종승 담임 목사는 "이번 나눔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영규 왕정동장은 중앙교회에 감사패를 전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의료원, '정오의 음악회' 개최**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12월 3일, 환자와 내원객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돕고 치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점심시간을 활용했으며, 남원의료원 조석범 소아청소년과 과장이 연주자로 참여한 총 6곡의 공연으로, 편안한 분위기의 음악으로 구성해 환자, 보호자, 내원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를 준비·운영함으로써 병원 내부 소통과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환자 친화적인 병원 문화 조성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오진규 원장은 "음악이 가진 힘을 통해 환자와 내원객께 잠시나마 위로와 휴식을 드리려 준비한 행사"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소방 합동훈련 실시**

정읍시가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소방서 및 유동 종사자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2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 상황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20여 명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소화했다. 훈련은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화재 신고 요령부터 초기 진압 방법, 신속한 대피 유도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또한 정읍소방서 관계자의 시범 아래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분사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제시, 읍면동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는 지난 3일과 4일 김제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 추진 등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전담 공무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동대원 등 인적안전망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이연유조정센터 이현숙 대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인적안전망 위원들의 역할과 이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전략을 통해 인적안전망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최낙관 원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안내했다. 또한 임은선(임은선 크래프트) 대표는 사각지대 담당 공무원 및 인적안전망 위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김제=곽노태기자